

인도인들이 식용기름 재료로 사용하는 유채꽃밭 위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행선을 하고 있다. 인도의 드넓은 자연풍경은 순례 중 피로를 가시게 했다.

부처님 걸었던 길, 아파도 힘들어도 함께 나아간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② 인도 체나리서 부다가야까지(순례 2주차)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루나여, 그들이 너를 죽이면 어찌하겠느냐."

"저는 그들을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저들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난파란타국으로 전법을 떠나는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다.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의 격려를 받고 수난파란타국으로 건너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전법에 매진했다. 전법포교에 있어 크고 작은 난관, 특히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함을 보여주는 일화다.

순례 2주차를 맞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험난했다. 새벽 움푹움푹 파인 인도의 제방을 걷고, 수많은 트럭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위를 지나기도 했다.

순례단이 2주차 동안 행선한 거리는 297km로 전체 1167km의 1/4 지점에 불과하지만 일정 중 가장 어려운 구간에 속한다. 그만큼 순례단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순례단은 원력과 신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비포장 · 고속도로 아슬아슬 순례길

2월 16일 행선은 체나리에서부터 삘키, 로흐따스를 지나 아침공양 후 단부르와를 거쳐 사사람에 도착하는 30km 구간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선길은 갠지스강 남쪽강인 손강의 지류를 따라 만들어진 제방길 위에서 진행됐다.

인도의 제방길은 우리의 제방길과는 상황이 달랐다. 마치 비포장도로처럼 1m 간격으로 움푹움푹 파인 곳들이 존재했다. 흔히 있는 한국의 가로등 불빛이나 시골마을이어도 있는 등조차 없는 칠흑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이른 새벽부터 행선에 나선 순례단이 서로의 랜턴 불빛에 의지해 행선을 이어갔지만 위태로운 순간이 펼쳐졌다.

아침공양 전 마지막 휴게장소인 필키 마을에서는 순례단이 행선하고 있던 제방길 쪽으로 무전이 급히 호출됐다. 한 스님이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다. 다행이 이마가 조금 다친 정도에서 끝이 났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침공양 장소까지는 14km.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며 약 4시간을 이렇게 걸어 아침공양 장소인 한 경찰서에 도착하자, 여명이 움트고 있었다.

해가 뜨자 순례단을 반긴 것은 인도사람들의 식용기름 재료로 키워지는 유채꽃과 넓게 펼쳐진 밀밭이었다. 새벽의 어려움을 뒤로 인도의 드넓은 자연풍경은 순례 중의 피로를 가시게 했다.

이어 손강 지류를 따라 25km 행선한 순례단은 '그랜드 트렁크 로드'로 불리는 인도 북동부 간선도로에 올랐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으로 이어지는 이 간선도로에는 수많은 트럭들이 지나갔다. 그동안 순례단을 엄호하고, 교통 정리를 했던 인도경찰들이 다시 나섰다. 경찰들의 개입으로 이 간선도로는 순례단이 건너는 동안 잠시 흐름이 멈췄다.

이후 동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순례단은 5km 가량 행선을 이어갔다. 인도경찰들이 통제했지만 십수톤은 되어 보이는 트럭들이 씽씽 옆으로 달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순례단은 부루나 존자와 같이 초연했다.

봉암사 수좌 스님으로 이번 순례에 동참한 5조 시관 스님은 "조건이 좋으면 더 좋을수록 불평불만이 쌓이는게 사람의 마음"이라며 "한국의 선방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 수행하는 많은 스님들이 이 곳에서 하루만이라도 같이 행선한다면 수행 중에 나오는 불만 같은 마음티끌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웃었다.

2월 17일에도 순례단은 여전히 그랜드 트렁크 로드에 있었다. 순례단이 이날 걸은 거리는 24km에 불과했지만 행선 전체 구간이 고속도로로 이뤄져 있어 위험천만했다. 순례단이 고속도로를 걸은 이유는 이 도로가 예전 부처님이 걸은 길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랜드 트렁크 로드에 포함된 인도 국도는 N1번, N4번, N405번, N507번, N6번, NH12번 NH19번, NH44번 등으로 이날 순례단이 걸은 구간은 그랜드 트렁크 로드에 포함된 NH19번 도로였다. 이 도로는 수차례 개보수를 하였지만 오래된 만큼 굴곡이 크고, 중간 중간 공사구간이 많았다.

하지만 순례단은 차분히 인도경찰 통제의 도움 하에 행선을 이어갔다. 새벽길을 재촉한 순례단은 손강을 넘어 북인도 철도와 수운교통의 교차로인 손나가르에 도착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로만 다니지 않으셨을 것이다. 순례단은 오늘도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씩 정진했다.

佛緣 씨앗 뿌려…현지 불자들 감동

순례단 발길은 단순한 걷기에 그치지 않았다. 순례단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불연(佛緣)의 씨앗이 뿌려졌고, 현지 불자들의 신심은 더욱 공고해졌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18일 수운교통 중심지인 손나가르부터 파르사까지 26km 거리를 행선했다. 인도불자들이 마중 나온 새드푸르 마을과 석가족들이 방문했던 바부아 외에는 인도불자들과의 접점이 없던 순례 일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인연이 싹텄다.

순례단은 손나가르를 출발해 라뜨노르, 코라이푸르, 카심박하를 거쳐 파르사 마을 어귀에 당도했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는 마을 주민들이 가득 나와 있었고, 불사 중인 2층마다는 불교기가 꽂혀 장엄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가능했던 산푸르살라 씨는 "여기 파르사 마을 인구 1000명 중 500명이 불교도다. 달리트(불가촉천민)이었던 우리들에게 암베르카르 박사는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인도 헌법을 제정한 암베르카르 박사를 따라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산푸르살라 씨는 순례단의 방문이 달리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푸르살라 씨는 "순례단에서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느낀다"며 "불교가 인도에서 나와 한국과 중국, 일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많은 국가로 전파됐는데 인도서는 매우 적다. 순례단 방문을 계기로 인도에서도 불교가 다시 퍼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순례단의 방문에 파르사 불자주민들은 "우리는 힘을 모아, 2층 법당도 지을 예정"이라며 환희심을 감추지 못했다. 불자인 파르사 마을주민들은 숙영지 옆 학교 건물을 청소하고 비워 순례단에게 내줬다. 이들에 따르면 순례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길을 비롯해 학교 화장실 청소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2조에서 행선하고 있는 진오 스님은 "많지는 않지만 작은 꽃 두송이는 난다의 빈자일등이 생각이 나 그동안 받은 어떠한 꽃보다 감동을 주었다"며 "없는 형편에서도 청소도 깨끗이 하고 풍선도 불어 부처님을 장엄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순례단의 저녁예불에는 옆마을까지 많은 현지 불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법회 후 회주 자승 스님에게 부처님과 암베르카르 박사가 함께 그려진 액자를 전달했다.

이런 현지 주민들의 모습에 2월 19일 엄어와 마을과 2월 20일 카파시아 마을에서 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기설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인연이 훗날 진리의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라는 축원도 이어졌다.

순례단이 인도 입국부터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인도 내의 불심이다. 인도에서 소수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 통념이 직접 마을 마을을 다니며 만난 인도 불자들로 인해 깨지고 있다.

힌두교로 흡수된 줄 알았던 인도불교는 엄연히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적었지만, '평등과 차별 금지' '평화' '생명 존중' 등 부처님이 전한 큰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들이 많았음이 느껴졌다. 순례 곳곳에서 '나무 붓다' 라고 하며 합장하는 이들을 흔히 발견 할 수 있었다.

인도에서 불교도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로 힌두교도들이 불교성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버스로 다니는 성지 중심 순례에 비해 직접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서려있는 마을과 마을을 찾아다니는 순례단의 행보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피부로 와닿는 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순례단 대변인 종호 스님은 "순례 초반이지만 불교중흥의 기치를 한국을 넘어 그 원류인 인도에까지 드높인 것이 큰 성과"라며 "한국에서도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르며, 이곳 주민들에게 불연을 맺고 있는 순례단의 행보를 보며, 불교중흥의 원력을 새롭게 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붓다로드, 우린 그 길을 간다

순례 2주차, 순례단의 외형은 인도인들처럼 검게 타고, 바짝 말라갔다. 매일 새벽 2시부터 20여 km를 8시간 이상을 걷고 텐트 하나에 의지해 풍찬노숙하는 상황은 순례단의 육체적인 피로를 높이고 있다. 회주 자승 스님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가 하면, 총도감 호산 스님도 감기몸살로 매우 안좋은 상황에서 순례를 이어갔다. 허리와 무릎이 안좋은 선지 스님, 관절이 아픈 현조 스님 등이 순례단 후미의 차량을 부분 이용하거나 앰뷸런스에서 처치를 받으며 순례를 이어갔다. 다들 초췌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신심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올랐다.

3조 조장 법원 스님은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어 힘들어하는 대중들도 있고, 발의 물집도 걷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퇴전의 신심으로 극복해 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차, 순례단은 비로소 부처님 성도지인 부다가야 도착했다. "우리의 걸음은 신행 원력의 희망으로 삼아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겠나이다. 내 안에 항상하시는 부처님, 마음의 자유와 세상의 평화를 증명하시어 매순간 극락을 펼쳐주소서."

약 2주간의 역경을 뒤로 하고 걷는 행선에는 걸음마다 꽃비가 내려 순례단의 행보를 장엄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이날 순례단의 원만회향을 응원하는 100명의 응원단을 구성해 보드가야 입구부터 순례단을 맞이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한국에서도 불교가 살아있음을 함께 느끼고 있다.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 있는 만큼 건강하게 무사히 원만회향하시길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2주차 순례의 백미(白眉)는 2월 22일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였다.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순례공덕이 있다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자리에서 순례단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회주 자승 스님도, 순례단 개개인도, 멀리 한국에서 온 불자들도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원을 세웠다.



2월 22일 세계평화기원법회서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이 불교 중흥에 대한 진실되고 간절함이 있다면 꼭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회 발원문 봉독 중 자승 스님이 흘린 한줄기 눈물은 불교중흥의 서원이었다.



순례단이 부다가야 분황사에 모셔진 부처님 앞에서 일일 순례 회향을 고하고 있다.



순례단이 부다가야 입구로 들어서자 한국에서 온 불자들과 인도주민들이 준비한 꽃을 뿌리며 원만회향을 기원하고 있다.

움푹 파인 인도 제방길, 트럭 질주하는 고속도로
부처님 걸었던 '붓다로드'이기에 묵묵히 걸을 뿐
불교 척박하다던 편견 부순 인도 불자 신심 목격
자승스님 "훗날 진리 불꽃 피워 올릴 것" 축원해
마하보디대탑서 세계평화기원법회, 2주차의 '백미'